

가자 2.25 총파업! 박근혜정권 퇴진하라!

✎ 홍미리 기자 | ⓒ 승인 2014.01.18 22:55

박근혜퇴진, 민영화-연금개악저지, 철도노조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 가운데 대회 참가자들이 민중의례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민주노총이 철도·의료민영화를 저지하고 연금개악을 막고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한 2월 25일 국민총파업을 거듭 결의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2시30분 서울역광장에서 개최됐다.

철도노조 파업투쟁을 그린 영상 상영에 이어 고창식 철도노조 교선실장이 김명환 위원장의 편지를 대독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연말연시 이 땅을 뜨겁게 달군 철도노동자들의 파업과 국민의 성원은 철도민영화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전 국민적 염원의 분출이었다”고 말하고 “절차, 방법, 목적 등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철저히 합법적인 파업투쟁에 철도공사와 정권은 어거지 업무방해 혐의로 철도노동자들의 의로운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여론을 호도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우리 투쟁을 막을 수 없으며, 철도공사와 정부는 구속, 해고, 징계로 더 큰 갈등을 불러올 게 아니라 전향적 자세로 성실히 철도노조와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해야 한다”면서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앵무새처럼 법과 원칙만 운운하는 구시대적인 작태는 마치 철도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또 어떤 투쟁을 더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보여 달라고 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영익 위원장 직무대리를 중심으로 강철같이 단결하고 두터운 국민들의 신뢰 속으로 달려간다면 철도노동자들은 승리하는 투쟁을 또다시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노동기본권이 짓밟히는 세상은 감옥과 다를 바 없으며, 저는 비록 작은 감옥에 몸이 묶여 있지만 항상 동지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격려했다.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투쟁에 나선 철도노동자 모두가 바로 철도노동자 김명환”이라고 말한 철도노조 위원장은 “우리의 무기인 철도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국민들의 염원인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하여 두려움 없이 성큼성큼 나아가자”고 호소했다.



▲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전국철도노동조합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와 지방본부장들이 무대에 올라 철도노동자들의 이후 투쟁을 결의했다.

부산지방본부장. “고맙다. 한 달 동안 동지들의 투쟁을 티비와 인터넷으로 지켜왔다. 제 자신이 철도노조의 지도부라는 게 정말 행복한 23일이었다. 우리는 승리를 향해 달려왔으며, 단 1명의 구속도, 단 1명의 징계도 인정할 수 없다. 국민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철도노동자는 곧 국민이다. 그렇기에 우리 투쟁은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확신한다. 승리하는 그날까지 투쟁하자!”

영주지방본부장. “어제 밤늦게 가족을 만났다. 우리 아이 아홉 살 막둥이는 조금 서먹해하는 느낌이었지만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이 싸움을 치열하게 정리하며 우리가 다시 싸울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투쟁을 승리하는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우자!”

대전지방본부장. “동지들이 자랑스럽다. 제가 철도노조 간부라는게 자랑스럽다. 정말 열심히 싸웠고 민영화 저지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박근혜정권의 가장 큰 위기가 철도파업이었다고 한다. 민영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임기 내내 위기는 계속될 것이다.”

서울지방본부장 직무대리. “서울지방본부장 직무대리다. 저는 기분이 좋지 않다. 우리 조합원들이 함께 가고 함께 오자고 했는데 지도부는 함께 오지 못했다. 특히 5명의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할 때까지 서울지방본부를 중심으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철도노조의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구심에 서울지방본부가 앞장설 것이다.”

이영익 철도노조 위원장 직무대리. “철도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직무대리다. 23일 간 영웅적인 파업투쟁을 벌인 자랑스러운 철도동지를 반갑다. 언제나 변함없이 굳세게 연대해준 민주노총 동지들과 KTX범대위, 시민사회단체에 감사드린다. 동지들이 우리와 함께 싸워줘서 박근혜정부와 사측의 무자비한 탄압에 굴하지 않고 23일 간 파업투쟁을 벌일 수 있었다. 전 국민과 전 사회가 철도를 민영화하면 안 된다는 공감대를 만들 수 있었다.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린다. (큰절) 박근혜정부는 지금 철도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대량 해고와 대량징계, 손배, 강제전출을 계획하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제정신이면, 똑바로 정신이 박혔으면 철도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합법파업을 벌인 철도노동자를 탄압할 게 아니라,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철도가 죽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추잡하게 자신의 정치적 욕심만 채우기 위해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최연혜 사장을 사퇴시켜야 한다. 지난 목요일 법원은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해 자랑스런 철도노조 지도부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과 절차에 의해 합법적인 파업투쟁을 전개했고, 여야 정치권의 합의를 존중하며 철도노조가 어렵게 파업철회를 결단했으며, 철도 지도부가 자진출두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를 없앨 가능성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했다. 여야와 철도노조의 합의정신을 무시하고 구속한 박근혜정부는 사리에 맞지 않는 구속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자랑스런 철도노조 지도부를 석방해야 한다. 박근혜정부의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를 저지하고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23일 간철도노동자들은 영웅적 투쟁을 전개했다. 파업을 계속 이어가야 하며 그 시작은 임금형평성투쟁이다. 임금손실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리 모두 함께 책임지자. 얼마나 강철같이 단결하고, 얼마나 끈질기게 투쟁하는 노동자인지를 박근혜정부에게 보여주자. 저 위원장 직무대리가 김명환 위원장의 투쟁정신을 이어받아 수서발KTX 분할 민영화를 철회시키고 노조탄압을 분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투쟁할 것이다. 노조의 대화와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대량해고와 강제전출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필공명단을 다시 작성해 2월 이후 국민과 함께 2차로 강력한 투쟁을 벌일 것이다. 힘차게 싸우자. 고맙다.”



▲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계약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철도노조 조합원들을 비롯한 대회 참가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철도민영화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2.25 국민총파업을 성사시키는데 전 조직적 역량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해외 노동자들의 철도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민주노총 침탈을 규탄하는 연대가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브리질, 우크라이나, 필리핀, 방글라데시, 스위스, 타이완, 오스트레일리아, 아르헨티나, 영국 등에서 한국의 철도노조 파업을 응원하고 박근혜정부의 노동탄압 중단을 촉구하는 연대투쟁이 쇄도했다.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이 제프리 보거트 국제노총 법률자문, 데이빗 보이스 국제공공노련 사무부총장, 아오바 히루 국제공공노련 동경사무소 성원, 루완 수바싱게 국제운수노련 법률자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존 사무총장은 “국제노총과 국제공공노련, 국제운수노련과 OECD TUAC를 대표해서 이 자리에 연대하기 위해 참석했다”고 인사하고 “철도노조가 자신의 근로조건과 국민의 권익을 위해 정당한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를 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전교조 법외노조화, 공무원노조가 합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교섭조차 못하는 상황은 중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정부는 20년 전 국제노동기구에 가입하고, 17년 전 OECD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한국의 노사관계를 국제기준에 맞추겠다고 약속했으며, 몇 년 동안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합법화하고 제3자개입금지조항을 철폐했지만, 이제 다시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하고, 공무원노조 합법적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철도노조 간부들을 파업을 이유로 구속했다”고 규탄했다.

에반스 사무총장은 “전 세계 경제는 세계화되고 있으며, 한국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 역시 다른 모든 나라들도 추진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런 때일수록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연대! 투쟁!”이라고 외쳤다.



▲ 존 에반스 OECD 노동조합자문위원회(TUAC)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운수노련 법률자문 등이 무대에 올라 철도노조 노동탄압을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2.25 국민총파업 투쟁을 성사시켜 민중의 행복과 희망을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지들 추운가? 괜찮은가? 이후 진행될 용산참사 5주기 추모집회에 함께 할 수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진행될, 민주평화통일에 헌신하신 문익환 목사님 20주기 추모식에 함께 할 수 있는가? 연대는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연대는 연대로 이어져야 한다. 철도 노동자들의 자랑스러운 파업에 수많은 연대의 손길이 이어졌다. 영웅적 투쟁의 뒤에는 국제노동자들의 연대의 기운이 있어 그것이 가능했다. 그 가운데 캄보디아 노동자들이 임금 8만원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충격을 가했다. 그 캄보디아 노동자들도 철도노동자들에게 간절한 연대를 했으며, 철도노조 투쟁과 민주노총 탄압에 맞서는 투쟁의 과정에서 노구를 이끌고 함께 해주신 백기완 선생님을 비롯한 어르신들의 간절함도 우리와 함께 했다. 민주노총 지도위원들이 단식으로 민주노총을 지켜주셨다. 그 마음들을 이제 우리가 당당히 받으며 이 땅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것이다. 연대의 손길들,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박근혜정부와 권력과 자본의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찬 세상을 멈춰야 한다.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자본가와 권력자들만의 것이며, 이 땅 민중의 행복이 아니다. 그들이 말하는 민영화는 자신들의 더 큰 탐욕, 자본의 끝없는 탐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이 땅에서 짓밟히는 민중의 행복이 아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 이유다. 민주노총과 연대하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모아 이 땅 민중의 새로운 역사를 쓰자. 민중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자! 끝났는가? 끝났는가? 구속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우리 힘으로, 우리 투쟁으로 구출하고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자. 철도노동자들의 투쟁과 민주노총 총파업은 이제 다시 시작이다. 동지들, 제가 연설을 짧게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자꾸 길어진다고 지적을 받는다. 가면 갈수록 할 말이 많아진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너무도 고마운 마음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어떻게 하면 더 힘 있는 투쟁을 만들까 하며 어제 총연맹 사무총국 토론회를 했다. 2.25 총파업의 전망을 만들자며 제가 말을 길게 했다가 야단을 맞았다. 우리 노동자들은 역사를 살아오며 단 한 번도 투쟁을 멈출 수 없었던 게 현실이었다. 동지들은 짧은 순간 승리에 만족하고 순간에 좌절하고 절망하는가? 이 땅 민중의 행복을 쟁취하는 그날까지 서로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그 시작이 될 2.25 총파업을 힘 있게 수행하자! 노동자, 농민, 빈민이 2월 25일 함께 국민총파업을 만들기 위해 공동제안서를 채택했다. 2월 25일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에 맞서는 모든 국민의 투쟁을 모아서 우리의 힘으로 총파업을 성사시키자. 이 땅 민중의 행복을 위해 힘차게 진군하자! 구호로 마무리한다. 총파업 투쟁으로 세상을 바꾸자!”



▲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악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본대회 개최에 앞서 사전 투쟁발언으로 소젯 캄보디아 이주공동체 노동자들이 눈물로 연대를 호소했다. 그들은 “20만원도 안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요구했는데 캄보디아 정부와 한국 기업들이 결탁해 야만적인 탄압을 벌였고 여러 명이 죽었으며 23명이 감옥에 갇혔다”고 전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모든 노동자가 힘 모아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수도권-중부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북·충남·대전)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에 집결했으며, 전국 거점 10개 지역에서도 같은 내용의 집회가 열렸다. 광주우체국, 전주 구코아백화점, 경남 창원 정우상가, 부산 서면, 울산시청, 제주시청 앞에 민주노총 지역 조합원들이 모여 각각 결의대회를 가졌다.

앞서 경북지역 노동자들은 16일 경주KT 앞에 모여 집회를 개최했으며, 포항은 17일 오후 집중선전전을 진행했다. 대구지역 조합원들은 17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남에서는 시군별 촛불집회를 열어 박근혜정권 퇴진을 외쳤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국제노총(ITUC), 국제운수노련(ITF) 등 국제노동기구 대표단이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정부의 철도노조 탄압을 규탄하며 연대활동을 펼친다.



▲ '박근혜 퇴진! 민영화-연금개혁 저지! 철도노조 탄압 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 본대회에 앞서 소젯 캄보디아 이주공동체 노동자들이 무대에 올라 눈물로 연대를 호소하고 있다. © 변백선 기자



홍미리 기자 gommiri@naver.com

저작권자 © 노동과세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